



사진/박동웅

성문화제 자료집

성, 그 막힘과 트임

• 자기 내부의
또 다른
성 찾기 •



- 주 최 -

21세기 진보학생연합 성정치위원회 · 총동아리 연합회
가정대 학생회 · 경상대 학생회 · 법정대 학생회
사범대 학생회 · 자연대학생회

한 여자가 거울앞에 앉았다.
'난 왜 이렇게 못 생겼지?'
한숨만 깊어간다.

한 남자가 화장실에 우뚝 서 있다.
'오늘도 여전히 작구나. 너무 싫다.'
자신이 없다.

네 마누라를 두들겨 패면 팔수록 그녀는
너를 위해 더 맛있는 음식을 해줄 것이다.

-러시아 속담-

선천적으로 여자는 남자의 노예로 정해져 있다.

-나폴레옹 1세-

세상엔 선한 원칙이 있어 질서와 광명 그리고 남자를 만든 반면,
악한 원칙이 있어 무질서와 암흑 그리고 여자를 만들었다.

-피타고라스-

생각하는 여자는 화장하는 남자만큼이나 구역질난다.

-레싱-

불완전하고 실수투성이인 한 남성에게 복종하기 위해
태어난 여성은 처음부터 아무 불평없이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견뎌내는 것을 배워야 한다.

-루소-

여자는 닭처럼 어리석으며 아무리 머리 좋은 여자라 할지라도
기껏해야 닭 두 마리를 합친 정도이다.

-공자-

여자의 본분이자 유일한 명성은 남자의 가슴을 사로잡는 일이다.

-발자크-

성문화제 일정



배앗긴 순정
(정신대 할머니 그림중에)

9월 30일(첫째날) 오후 2시~6시

- 변영주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 상영
낮은 목소리(The murmuring)
- 아시아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 2 -
- 변영주와 감독과 정신대 할머니와 함께

10월 1일(둘째날) 오후 7시

- 동아리 공연(청맥 사물놀이, 새소리 공연)
- 촌극(성정치위원회)
- 가수 윤도현 공연



윤도현

10월 2일(셋째날) 오후 3시~5시

- 이정우(한국동성애자인권협의회 간사) 공연
- 초가부장적 사회에서
동성애자 인권운동에 대하여 -



이정우

자료집 순서

여는글	/ 2
격언	/ 3
성문화제 일정	/ 4
순서	/ 5
자기 내부의 또다른 성찾기	/ 6
성문화제를 제안하며	/ 7
낮은 목소리	
아시아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 / 변영주 감독	/ 8
일본의 성전을 치르기 위해 / 손덕수(사회복지학과교수)	/ 9
더이상 아픔의 역사라고만 하지말라	/ 12
강제적 이성애를 넘어서	/ 15
우리시대의 사랑 각본끼리	/ 20
우리 주위의 여성단체	/ 24
성인식을 도와줄 책과 영화	/ 27

자기내부의 또다른 성찾기

남자 후배가 얼마전 이런 얘기를 했다.

“고등학교 때 친구들을 만나면 내가 여대에 있어서 그런지 많이 변했다고 한다. 그리고 나도 또한 그들과 만나 얘기해 보면 내가 좀 여성스러워졌다고 할까? 하여튼 뭐가 옳다 그러다를 따지기 전에 신경쓰이는 것은 사실이다.”

이런 상황은 비단 후배뿐만 아니라 여자는 여성다워지길, 혹은 남자는 남성다워지길 스스로가 꿈꾸고 그리고 알게 모르게 강요받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는 남성성과 여성성이 철저히 분리되어 있다.

남성이 여성스러운 면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그다지 보기좋지 못하며 남성다운 여성도 그다지 성적 매력은 없어 보인다. 물론 남성스러운 여성은 그래도 “능력있다”로 여겨져 여성적인 남성보다는 쉽게 비난을 면할 수 있다. 어쨌거나 남성은 철저히 남성성을 가져야만 완벽하며 여성은 철저히 여성성을 가져야만 완벽하다고 한다.

우리 사회에서는 남성성이 여성성을 압도하고 있다.

여성적인 것은 열등한 것으로 남성적인 성향은 능력있는 것으로 우리의 가치체계에서 이미 굳게 박혀있다.

이번 행사의 의미를 ‘자기 내부의 또 다른 성찾기’라는 부제를 단 것도 이 때문이다. 우리의 내부엔 소위 말하는 여성적인 혹은 남성적인 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편견과 이데올로기속에서 자신을 온전히 개발하기도 전에 남성과 여성으로 철저히 만들어지고, 그 나머지 기질들은 그들이 남성이나 여성이나에 따라 억압되어지고 통제된다. 개인의 개성이 존중되어지기도 전에 사회의 거대담론에 의해 압도되어지는 이 사회는 전체주의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인생에서 정답은 없다고 했던가? 그러나 사회에서는 이미 정답을 내리고 있다. “넌 이래야만해”라고. 하지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보려 한다. 우리 스스로가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부터.

21세기 진보학생연합
성정치위원회 위원장 윤 정 온

성문화제를 제안하며

행사를 준비하는 사람은 다르지만 좋은 주제로 다양한 내용을 담고자하는 욕심은 다 마찬가지일 것이다.

대동제를 여는 취지는 크게 하나되는 대학문화의 장을 만들고자 한 것이다.

매해물 거듭할수록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풍요속에 빈곤이라는 말처럼 엇비슷한 내용으로 장소만을 달리하여 행사를 치룬다는 생각이 든다.

‘대학문화는 시대의 문화를 앞서간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지금의 현실은 사람 수의 부족, 재정상의 문제 등 전반적으로 부족한 점이 많아 보여주고 싶은 것, 나누고 싶은 것들을 대동제에 담아내지 못했다.

96 대동제에서는 이 문제점을 넘어선 욕심나는 자리를 만들고자 5개 단대와 총동연이 21세기 진보학생연합과 함께 성문화제를 준비했다. 대동제의 참뜻에는 완전히 다가설 수 없을 것이지만 알차게 준비한 문화제를 시작으로 대학문화의 꾸준한 변화를 요구하고자 한다.

열심히 한만큼 많은 학우들이 함께 했으면 한다.

(가정대·경상대·법정대·사법대·자연대 학생회, 총동아리 연합회)

아시아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 2

변영주 감독

...언제나 전쟁과 침략은 수많은 불행을 야기시켰다. 특히 여성에게 가해지는 수난은 과거의 로마제국의 약탈부터 최근의 보스니아 내전에서 여성의 피해에 대한 조직적인 강간 행위까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이 영화는 바로 이 수난의 역사 그 한가운데를 바라보고 있다. 그러나 어둡고 서러운 역사를 이 영화는 결코 그대로의 모습으로 보여주지는 않는다. 그 고난의 역사 저편에 존재하는 조그마한 희망을 부여잡기 위해 이 영화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 강제 군 위안부 출신 할머니들의 낮지만 깊은 목소리를 화면 가득 담고 있다...

...1993년부터 7월, 나는 멋대로 이 영화를 시작해 버렸습니다. 조금은 성가시고 많이 상처받은 모습으로 할머니들은 훨씬 뒤에서야 함께 시작해 주셨습니다. 언제부턴가 제작진과 할머니들은 의기투합했고, 서로 대견해하며 동지처럼 눈맞추고, 희망을 불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뷰 도중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흘리던 눈물을 시계추처럼 왔다갔다 하던 기대와 절망, 매일매일 저를 미치게 한 것은 이 영화를 끝까지 만드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이었고, 우리들은 오기가 솟았습니다. 모두가 힘들 것이라고 했던 이 영화를 끝내고야 말겠다고, 할머니들의 '낮은 목소리'를 알리고야 말거라고.

1995년 1월, 모든 촬영을 마치면서 나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 영화를 만들면서 사랑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할머니들의 삶과 고통, 추억, 그리움, 인내와 분노에 나는 끊임없이 구애하며 목이 말랐습니다. 진정 고백하건대 이 영화는 나에게 있어서 '영화'라는 곱은 손으로 1년 8개월동안 수없이 고쳐쓰며 적어내려간 한편의 연애편지입니다.

첫 시사회에서 할머니들은 "이젠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 영화 속에 우리가 살아 있으니"라고 즐겁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들께서 새로운 희망이 생긴 것입니다. 이 영화로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는 할머니들을 만나기 바랍니다. 뒷머리가 당기는 어쭙잖은 책임감이 아니라 그 살아있는 아픔과 희망을 만나기 바랍니다. 이 편지는 다음 장을 위하여.

일본의 성전을 치르기 위해

손덕수
(사회복지학과 교수)

- 일본의 "聖戰"을 치르기 위하여 "性戰"에 제물이 된 20만명의 조선처녀를 애도하며 일본 제국주의 전쟁시(1937~1944년), 일본제국과 가난한 부모를 위하여 정신대로 팔려나간 수는 무려 20만명을 헤아린다. 그 때의 실상을 손덕수 교수님(사회복지학과)의 「정신대의 실상」에서 발췌, 소개하고자 한다.

군 특수임무와 총성

일본이 중일전쟁과 태평양의 연속적인 침략전쟁을 치루면서 조선인 말살정책 역시 전쟁터로 옮겨졌다. 즉 ①조선청년은 군인으로 ②조선 처녀들은 군대의 '특수임무'에 충당한다는 것 그러면 '특수임무'란? 그 임무는 천황을 위한 영광의 기회라고 속이면서 간호원, 세탁요원, 공원이란 명목으로 끌고 갔다. 그러면 세계전쟁 역사상 유례없는 '창녀'를 품에 안고 치르는 전쟁이 어떻게 그들 일본인에게는 가능한 일이었는가? 왜 조선처녀들이 그 대상이 되었나? 그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다.

즉 ①일본인의 여성천시사상과 성협오 사상 ②일본군대는 전장에서 약탈, 강간을 일상적으로 행하는 잔인성의 습관화 ③'모두 빼앗고, 태우고, 죽이는' 전술인 삼광작전의 광적심리는 여체에 의해 보상,위로 받아야 '정상'으로 회복된다는 그들 논리에 근거.(일본군이 15분 머물렀던 마을은 회복이 3년이 걸리고 하루 묵고 떠나면 회복은 불가능함) ④일본의 양가집 부인과 처녀를 보호하기 위해 조선의 처녀를 대용품으로 씀. 또한 "숫처녀를 대하면 전상을 입지 않는다"는 미신이 큰 역할을 한다.

조선의 '처녀사냥'과 결혼사태

처음에는 미혼여성들(16~19세)을 좋은 돈벌이를 시켜준다고 꼬셔갔다. 정조를 여성의 생명처럼 여기는 관습에서는 여자를 외지에 홀로 내보낸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으나, 가난한 여성들은 2,3년만 죽도록 일해 돈을 벌면 부모에게 효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지원자들이 많았다. 그러나 이내 그것이 '죽음의 길'임이 알려지자 딸 가진

부모들은 딸을 숨겨두고 음식물을 공급하였고 그 일이 탄로되어 곤봉으로 구타당하였다. 감시가 풀리자 산속의 딸을 찾아보니 딸은 벌써 백골이 되어 있었다. 이런식으로 (반)강제로 징발된 조선처녀들은 서울로 향하는 기차에서 태평양을 건너던 배 위에서 몇백명의 처녀들이 서로 껴안고 투신자살하는 일이 속출하자 나중에는 손발을 서로 묶어 나르기도 했다.

전쟁이 막바지에 다다르자 아기를 등에 업은 부인에게서 아이를 길에다 떼어 놓고 남치해가는 일이 속출하였다. '처녀사냥'이 조선 국토에 물결치자 이번에는 결혼사태가 속출했다. 남자만 있으면 아무하고나 결혼시키는 사태, 유부녀는 징집대상이 안된다는 소문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아있는 남자란 불구자, 병약자, 정신이상자들 뿐, 그러나 정신대로 끌려가 '창녀'로 죽느니 정신병자가 더 낫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리하여 문둥환자가 성한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인 일도 많았다 한다. 이혼이 금기로 되었던 조선사회에서 1년에 1만건 이상의 이혼사태가 벌어진 것은 전쟁 후 조선사회가 치뤄야했던 홍역이었다.

일본의 "聖戰"은 바로 "性戰"

"전쟁터에서 강간은 영혼과 육체의 세탁이다." 일본의 천황을 위해서라면 불가능한 것이 없었던 일본 정부는 군대와 은행, 매춘업자가 합동하여 여자사냥에 나섰다. 전쟁터의 피로는 위안부를 통하여 완전 원기가 회복되고 새 힘이 솟아 올라 전쟁에 승리한다고 선전하였다. 위안부 방에 들어갈 때 배급되는 콘돔의 용지위에도 '돌격1번' 혹은 '홀통하게 전사 하세요'라는 문구만 보아도 '거룩한 전쟁'은 고작 섹스전쟁을 방불케 했다. 중국 대륙에서는 일본군의 강간이 두려워 여자가 남장을 하고 다녀야했으므로 여자인지 분간을 못했다고 한다. 그래서 그들은 "마치 강간하려고 출정한 사람들 같았다"고 한 기자는 술화하고 있다. 일본군대가 생각하는 성은 인간이 아닌 짐승적 형태였다. 토벌작전에 나가서 부락여자를 잡아 윤간을 하고는 놀이삼아 죽이는 것이 보통이었다.

이렇듯 한국의 가난한 여성들은 식민지 전쟁의 가장 큰 희생물이 되었다. 그녀들은 전쟁의 폭력과 잔인성과 수모를 바로 육체 그 자체로 감당해야 했고 그녀들의 고백대로 "민족적 차별의 칼날에 가슴을 찢리고 성기의 창 끝으로 찢리며 빈곤에 몸을 팔아야 했다"던 한국의 식민지하의 가난한 여성들은 몸과 자궁으로 이 세상을 치참하고 쓰라리게 경험해야 했다.

한 집단의 사회 전기(social biography)는 객관적 분석만으로는 잡히지 않는, 몸으로 감지하는 숨은 현실인 것이다. 몸 자체로 시대의 고통을 감수했던 여성들은 몸과 마음 속 깊은 곳에 한과 수치라는 자기 분열을 키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여성에 대한 남성의 성착취의 심연인 것이다.

더 이상 아픔의 역사라고만 하지 말라!

기억을 더듬어보니 중학교 1학년 여름이 가까와오는 어느날이었다. 점심시간에 친구들과 심각하게 무언가 얘기하며 잡히지 않는 상으로 우리는 고민을 하게 되었고 수업중이 울렸다. 다음은 사회시간. 웬지 이것에 대해서는 사회 선생님께서 물어보아야 할 것같은 애감이 들었다.

"선생님, 오늘 어느 책에서 보았는데 '정신대'라는 것이 있던데 그게 뭐니까?"

여느때의 질문에 대한 응답과는 달리 선생님은 좀 머뭇거리시더니 얼굴에 이해하지 못할 야릇한 웃음을 지으며 "그건 니네 선생님께서 물어봐라. 여자선생님들이 더 잘 알거다."

"왜 여선생님에게 물어보라고 하세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그런 것이 있다... 일제시대에 군인들을 계속해서 싸우게 만들려고 여자들을 군인들에게 제공했다는 말이다. 한마디로 나라가 힘이 없으니 여러분 또래의 여자애나 결혼하지 않은 처녀들을 매춘부여성으로 끌려가게 할 수 밖에 없었다." 우리는 우리 또래의 여자애라는 말에 '내가 그 시대에 태어났더라면...'이라고 생각하니 소름이 끼쳤고 그나마 이시대에 태어난 것이 다행이라 생각하며 또 한가지 의문점이 생겼다. "그럼, 임신하면 어떡해요?" 미혼 여성이 임신한다는 것은 가장 큰 죄악이라 성교육을 받아온 우리들로서는 당연한 질문이었다. "너무 많이 하면 임신도 안된다."이 대답이 나오자마자 우리는 킥킥웃기 시작했고 선생님이 따라 웃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런 형태로 정신대를 알게 되었으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대들은 다시 알아야 한다. 여성에서 창녀에서 정신대로, 성노예의 문제는 극화된다. 14세에 국부를 절제당한 채 강간당하고 지금은 중국에 버려져 살고 있는 그들이 당신은 불쌍한가? 아니 그대들은 분노해야 한다. 그들이 수탈을 당할 수 있는 시대의 구조와 권력에 분노해야 한다. 수탈에 정당하게 맞서 싸울 수 없었던, 수치심으로 숨어야 했던 사회의 모순과 모순을 조장한 이데올로기들에 분노해야 한다. 그리

강압적 아픔을 넘어서

고 지금의 대책없는 우리 정부와 정부의 책임을 국민 전체에게 돌려 민간기금을 조성하고 있는 일본정부에 분노해야 한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곳곳에 존재하는 정신대는 원래 보도 정신대, 의료 정신대 등의 통칭이었고 얼마전 '여명의 눈동자' 등으로 인해 흔히 불리워지는 정신대란 종군 위안부들을 말하는 것이다. 전쟁이 있는 곳에는 항상 종군 위안부 형태의 폭력이 난무하였다고들 한다. 일본의 경우 일본군과 정부가 계획하여 정신대들을 강제 모집하였으며 이는 강제 노동금지 조약을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삶에 대한 모독이었다.

특히 종군 위안부들의 경우 일본군의 성노예로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육체적 정신적 참화로 인한 상처를 입은 채 평생을 고통을 당하고 수치심을 느끼면서 살아야 했고 최근 몇 년간 이들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50년 만에- 대책마련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면서 겨우 자신들을 드러내고 배상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 정신대 문제는 결코 일본의 남성과 그리고 한국의 여성 사이에 일어난 강간 사건이 아니다. 다시 말해, 정신대 문제는 권력을 가진 자들이 철저히! 철저히 각 개인의 삶을 짓밟은, 폭력의 극대화된 모습이다. 특히 여성억압의 극화된 모습으로서 해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며 관심 또한 그 심각성에 비해 터무니 없이 작은 것이 현실이다.

우리는 오직 일본을 제치고 월드컵을 한국에서 개최하면 상처난 자존심이 조금이라도 회복될 수 있을 것같은 부푼 기대를 품는 어리석은 작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온통 매스컴을 월드컵으로 장식하며 정신대 할머니들의 치절한 투쟁을 방조하고 있다.

우리는 할머니들이 조용히 죽어가기를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닌가?

누구의 삶도 덜 소중해선 안된다. 할머니들의 삶을 되돌려받을 수는 없지만 그분들의 삶에 대한 댓가를 책임자들은 물론 그들을 방조했던 모두가 치뤄야만 할 것이다. 할머니들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이 요구된다.

아픈 역사라고만 말하지 말라. 이제는 해결해야 할 역사라고 하자.

해결되어야 할 과제는 첫째, 일본정부의 배상을 통한 정신대 문제의 해결의 중요성과

시급성이다. 일본정부는 민간 기금조성으로 위안부 제도를 범죄행위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을 드러내고 책임을 일본국민에게 돌리려고 하고 있다. 할머니들이 살아계실 때 반드시 사회, 배상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둘째, 위안부가 존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피해자들이 자신을 밝히지 못하게 했으며, 우리가 그들에게 등을 돌리도록 한 사회의 구조와 권력관계들이다. 전쟁 자체에 내부적인 커다란 문제가 있으며 일본의 특수한 문화 또한 이야기 될 수 있겠지만 이후 전쟁 후 정부 및 우리의 태도 또한 문제가 있었음을 밝혀둔다.

위안부 할머니들은 일본군에게 자신을 유린당하고도 자신을 피해자라고 밝힐 수 없게 만든 이 사회의 잘못된 통념에 다시 한번 유린당해야 했다. 죽음을 택할지언정 성폭행은 당하지 말아야 한다는 한국 사회의 터무니없는 정조관념은 할머니들을 지금도 난도질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그리고 지금도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는 매춘을 남성을 위한 '필요악'이라고 묵인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에 대해서도 의심해보자.

정복할 것인가 정복당할 것인가의 이분법적 지배 이데올로기 속에서 당당하게 정복할 것을 부르짖는 사람들이 지금도 존재하고 피정복자의 억압을 세상의 이치인양 이야기 하고 있음을 생각할 때 위안부의 문제는 단지 일본의, 과거의 문제가 아니다. 과거의 '위안부'는 강대국에 지배당한 식민지 국가에, 돈을 가지지 못하고, 권력에 짓눌려 있던 기층 민중이었고, '아시아에서 여성으로 살던 사람이었다. 그리고 현재에도 역사는 가난한 매춘여성을 잉태한 채 되풀이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강제적 이성애를 넘어서.

강제적 이성애를 넘어서 우리는 이렇게 털어놓는다.

"저는요. 중고등학교 시절 한 명의 동성 친구와 줄곧 붙어다녔죠. 아주 각별했어요. 대학에 들어와서도 남자 선배들이나 동료들보다 여자친구들과 더 친하고 더 편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저는 가끔 레즈비언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을 생각하면 너무나 두려워요. 내가 레즈비언이 된다니 생각만해도 끔찍하죠."

또는 동성이 좋아진다는 남학생에게 상담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한다.

"너무 걱정하지마. 정신과 의사선생님과 상담하면 고칠수 있을테니..."

"저런, 큰일났다. 에이즈라도 걸리면 어떡하려고..."

사회는 동성애적인 사고의 대중적인 표현을 막고, 그것을 '나쁜', '죄가 있는', '약하거나 아픈' 혹은 '개인적인' 것으로 통념화한다. 따라서 오늘날 동성애자들의 정치는 이러한 사회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으로 드러난다.

요즈음 잡지나 영화 그리고 소설과 같은 대중문화 속에서 이와 같은 도전들이 반영되는데 이것이 호모 섹슈얼의 정치적인 발언일 때가 종종 있다. 이와 같은 운동의 목표는 그들에 대한 지지뿐만 아니라 대중인식의 변화를 도모하고, 성적인 억압에 대한 문제를 공론화시키는 것이다. 자 이러면 우리의 고민이 시작된다.

동성애는 그 치료법이 개발된다면 치료를 받아야 하는 일종의 병인가? 아니면 단지 현시대 문화적 상황에서 여러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인해 비난받도 있을 뿐인 다양한 성적 경향중의 하나인가?

1) 이성애주의

이성애주의는 이성애의 보편성을 절대화하고 동성애나 다른 성애적 관계들(즉 성적 소수 집단)을 부인하는 심리적 정치적 제도를 일컫는다. 따라서 이성애주의라는 말에는 여성에 대한 성적 차별뿐만 아니라 동성애나 그 밖의 다른 성에 대한 차별을 가리킨다.

따라서 적어도 표면적으로 이성애주의라는 말에는 성적 선호나 성적 선택에 근거한 어떤 사회적 차별도 반대하고, 그것을 이성애라는 성적 정체성을 하나의 독자적인 이해로 격상시켜 법적 제도는 물론 일련의 사회적 장치를 통해 제도화하는 것 - 동성애를 법률적으로 금지하거나 특정한 나이의 제한을 두고 제한하는 것을 위시해 동성애자들의 가족결성의 권리를

부정하고 이성애적 가족에게는 허용되는 일련의 사회적 보장으로부터 배제하는 것 등등 - 이 포함되어 있다.

이성애주의는 남성성과 여성성을 보편적 정체성으로 만들어버리고 이성애주의의 폭력에 의해 우리는 한 명의 남성으로 한 명의 여성으로 강제되고 착취되고 소외된다.

따라서 여성의 성은 남성성의 정의에 따라 그의 역상이나 그 나머지로 정의되었다. 따라서 여성적 욕망이나 여성적 쾌락이란 존재할 수 없고 남성적 성의 호응물로서만 그 정의가능성이 생겨났다. 이런 점에서 남성성은 이성애주의적 사회내에서 헤게모니적인 것이다.

즉, 성에 관련된 모든 이질적인 욕망, 쾌락, 체험들을 전체화하는 담론이 남성성이었던 것이다. 결국 남성들은 자신들의 성적 정체성을 강요하는 폭력적 이성애주의의 한계내에서 단 하나의 보편적 남성성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동요하고 있다.

그 때 이들은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정복하기 위해 즉, 한 명의 완벽한 남성이 되기 위해 자신을 스스로 착취하고 소외시키게 된다. 성적 전능의 화신이 되기 위해, 경제적으로 유능하고 공적 세계에서 성공하기 위해 이들은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자신을 억압하고 착취한다.

이 때 한명의 남성이기를 좌절당했을 때, 그는 미치거나 자기도취적인 습벽에 빠지거나 새디스트가 된다. 그는 아내와 못 여성을 구타하고 희롱하며, 강박증적으로 보약을 먹고 끝없이 자신의 정력과 상대방의 만족 여부를 걱정하며, 사나이가 되기 위해 술과 나르시시즘으로 출렁대는 이른바 뒷골목 사나이 문화에 인생을 탕진하고, 인생의 짐이 되어버린 아이들을 두들겨 패고, 그 아이들의 행동이 자신의 평판의 기준이 된다는 점 하나로 그 아이들을 감시하고 학대하는 경찰관이 된다. 물론 이 모두를 운반하는 것은 폭력적이고 강제적인 이성애주의와 그것을 축으로 하는 근대적 성담론의 순환기관이다.

성은 남성과 여성, 자연적인 것과 비자연적인 것, 이성애자와 동성애자 그리고 정상과 비정상처럼 자기정체성 내지는 자아의 의미를 부여한다. 이 때 자연적인 성은 남성과 여성 간의 구분에 대한 가정을 담고 있는 것이므로, 동성간의 사랑은 비자연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성이란 자연적인 현상이라기보다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현상으로서 다양한 언어들에 의해 사회적으로 조직되는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도대체 성에서 말하는 진리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되물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자연적인 것과 비자연적인 것의 구분조차도 섬세하게 따져보면 사회적인 산물이며 역사

와 더불어 변화되어 온 것이다. 따라서 남성과 여성 간의 사랑만이 본질적이라고 말할 어떤 근거도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에서 동성애가 갖는 정치성이란 여성을, 성기중심적인 남성의 성 속에서 강제되어 왔던 이성을 넘어서는 의미지니고 있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인류학적 보고를 소개하고자 한다.

인류학적 연구 성과에서는 어떤 종족은 동성애를 권장하며 심지어 이를 보편적인 성애제도로 인정하기까지 한다. 더구나 어떤 부족들에게서는 우리와는 정반대로 남성 동성애가 남성 다움의 표징으로 받아들여진다.

또 잘 알려진 대로 그리스식 사랑으로까지 찬미되고 심지어 플라토닉 러브란 유행어까지 만들어낸 그리스시대의 성적 관계가 동성애적 관계를 높이 사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성차별주의적 남성성/여성성의 구분은 터무니없는 고집에 불과하다.

2) 커밍 아웃 Coming Out

커밍 아웃, 이것은 밖으로 나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 속어는 남성 동성애자들이 세상 밖으로 나오는 것. 혼이 일컬어지는 대로라면 일차적으로 자신 스스로의 입으로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긍정하는 움직임을 의미한다.

그리고 보다 구체적으로는 그러한 결단적 긍정에 뒤따르는 행동, 동성애자들의 커뮤니티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냄으로써 그 동네의 방문객으로 자신의 얼굴을 알리는 행동을 뜻한다.

자신을 남성 동성애자라는 하나의 성적 정체성에 등재시키는 이 실천은 그러나, 결코 단순치 않다. 커밍 아웃, 이는 실존적 실천이고 사회적 실천이고 정치적 실천이다.

먼저 그것은 실존적 행위이다. 이는 자신의 정체성을 이루는 가장 결정적인 뼈대인 성에 대한 숨막히는 죽음을 각오한 결단이며 긍정이다. 다음, 그것은 사회적 실천이다. 커밍 아웃은 내 삶의 어둠에 마침내 빛을 쏘이는 그리고 그곳을 내 반성의 중요한 무대로 탈바꿈시키는 일이다.

비로소 동성애성이 언제나 내 삶 속에 비로소 '있게' 되었다는 뜻이다. 즉 커밍 아웃을 통해 성인으로서 한 잠재적 남성 동성애자는 불투명하고 혼란에 사로잡힌 남성 동성애자의 이미지를 벗어나 게이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게 된다.

3) 정확한 단어들을 씁시다.

☞ 호모(Homosexual)와 게이(Gay)

동성애자란 성적 지향성(절대 성적 취향이 아님)이 동성에게 이끌리는 사람들이다.

흔히 우리사회에서 오용되고 있는 단어는 호모와 게이이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 호모는 남성동성애자에 대한 경멸의 표현이다. 반면 게이는 동성애자인권운동이 시작된 이후 동성애자 자긍심의 표현으로 쓰이기 시작한, 즉 말 그대로 동성애자로서의 성적정체성을 제대로 알고 자긍심을 찾아 새로운 삶을 찾은 것과 같이 기쁘다는 뜻의 단어이다.

☞ 퀴어(Queer)

사전적으로 '기묘한'이라는 뜻의 이 말은 동성애자를 지칭하는 동시에 이전의 미국의 백인 중산층 중심의 모더니즘에 기초한 이전의 동성애자인권운동에 대한 반성의 흐름으로 나온 새로운 동성애자운동의 흐름을 지칭한다. 퀴어무브먼트는 트랜스젠더들을 포함한 각종 성적 소수자들과의 연대를 의미한다. 80년대, 에이즈에 의해 된서리를 맞아야했던 동성애자인권운동에 힘을 불어 넣으며 새로운 주류가 되었던 투사들이 바로 퀴어무브먼트의 액티비스트들이다.

☞ 이반

이반은 우리나라의 종로나 낙원동과 같은 소수적이고 자생적인 동성애자 지하문화에서 쓰이고 있는 동성애자에 대한 우리나라식 명칭이다. 일반과는 다르다는 뜻의 자발적 격리집단으로서의 정의로서 이반이라 명명한 것이다.(일반의 일자를 '다를 이'자로 바꾼 재치있는 표현이다.) 영어의 퀴어에 해당하는 우리말이라 할 수 있다. 동성애자, 성전환자를 포함한 성적 소수자 모두를 포함하는 명칭이다. 즉, 한국동성애자 자긍심의 새로운 이름인 것이다.

☞ 레즈비언(Lesbain)

레즈비언은 누구나 잘 알고 있듯이 역사 속에서 늘 숭앙 받아왔던, 레스보스 섬의 사포(shapo)와 그를 따른 여성들의 사랑에서 유래된 단어이다.

☞ 트랜스-젠더드(Trans-Gendered)와 트랜스-섹슈얼(Trans-Sexual)

우리말로 하면 흔히 이성전환증자 혹은 이성전환주의자라고들 하지만 정확한 명칭은 성전환자가 옳다. 트랜스-젠더드와 트랜스-섹슈얼은 같은 말이나 트랜스-섹슈얼은 경멸적인 뜻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마스크라라는 영화로 유명해진 지나나씨 같은 경우이다.(하지만 여장을 했다고 다 성전환자는 아니다.) 트랜스-젠더드의 경우는 생물학적 성으로는 동성애로 보일지 몰라도 사회화된 인성은 분명 여성이므로 존중받아야 한다. 트랜스-젠더드가 남자와 사랑에 빠졌을 경우 스스로를 여성이라고 생각하므로 분명 이성애형태이지 동성애는 아니다. 즉, 트랜스-젠더드는 동성애자가 아니다.

이외에도 많은 단어들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이 정도만 소개하고자 한다.

우리 시대의 사랑 각본개기

누구나 사랑을 한다.

그러나 사랑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말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인류 보편적으로 존재 해온 것같은 '사랑'에 대해서 사회학자인 안토니 기든스의 보고에 의하면 근대가 태동하기 전에는 사랑은 일종의 '정신병'으로 치부된 정도라는 사실을 접할 때 충격을 감출 수 없다.

서구 사회에서 결혼과 사랑, 그리고 성에 따른 문화적 각본은 크게 봉건, 근대, 탈근대로 나누어 나타나는데, 근대에는 낭만적 사랑과 결혼이, 이제 탈근대로 넘어오면서는 결혼에 대한 거부와 함께 낭만적·감각적 사랑이 묘한 결합을 이루게 된다. 서구의 각본과 다를바 없이 우리 사회도 이와 비슷한 경로를 거치는데 현재의 우리사회의 사랑은 봉건, 근대, 탈근대의 낭만적, 감각적 사랑이 결합되어 묘한 양상을 드러낸다. 우리 시대의 사랑도 이 각본의 예외일 수 없으며 자본주의의 상업적인 매체들은 이러한 사랑의 각본을 생산, 유포하고 있다. 그래서 수세기에 걸쳐 이어져오는 사랑은 밀폐된 공간속에서 여전히 관습일 수 밖에 없으며 스스로의 발전도 없었다. 그저 발전의 대가가 오늘날 사랑하는 혹자들의 아픔일지도 모른다. 여기에 어떤 사랑으로 괴로워하는 우리의 모습을 실는다.

이글을 보고 '어쩔 내 얘기야, 누구누구 얘기야' 라고 맞장구를 칠 학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반가움이 사랑에 대한 진지한 문제제기로 이어질 것을 희망한다.

A와 B는 만 1년이 된 남들이 부러워 하지 않는 캠퍼스 커플이었다.

그러나 A가 동아리 회장이 되고부터 둘 사이는 비격거리기 시작했다. B는 예전처럼 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없어 불안했다. 수업도 밥도 눈에 들어오지 않고 밤잠을 설치기가 일쑤였다.

B는 오늘도 약속시간에 자꾸 늦어지는 A에게 화가 나 있다.

A : 뽀뽀받았지? 갑자기 동아리에 급한 일이 생겨서 말이야. 미안해.

B : 뽀뽀는 받지도 못했어, 그리고 니가 이런 식으로 늦은게 어디 한두번이니?

A :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마, 열심히 활동하라고 했을 때는 언제고? 어쨌다 보니 예기치 않던 일이 자꾸 생겨서 그래. 난들 늦으면 마음이 편하겠어?

B : 하기가 내가 화낼 자격이라도 있나? 내가 너한테 뭐라고.

A : 왜 또 그래? 뽀뽀했어? 화풀어. 쯔! 사과하는 뜻이야.(꽃 한송이)

B : (거들떠 보지도 않더니 얼굴이 점점 무거워진다.) 난 요즘 네 생활에서 밀려난 기분이야. 너한테 내가 필요없는 것 같아.

A : 왜 또 문제를 확장시켜? 우리가 헤어질 때라도 왔다는 뜻이야? 내 마음 아직도 몰라?

마침 A의 집 방향으로 가는 막차가 왔다. 집안이 완고한 탓이라 이미 많이 늦은 A는 그 차를 타지 않을 수 없었다. A는 흔들리는 차속에서 "있을 때 잘 하라"거나 "너 같은 애는 연애할 자격이 없다"고 하던 친구들의 말을 떠올리며 '내가 정말 연애하기엔 너무 속물인지' 돌아보게 되었고 급기야는 B에게서 자신의 마음이 진짜 멀어진게 아닌가 의심하기 시작했다.

(느낌 하나)

우리 시대의 사랑을 의심해 본 적이 있는가? 여기서 말하는 우리 시대의 사랑이란 TV나 영화 혹은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로맨틱 사랑을 의미한다. 아마도 우리들은 한 치의 의심없이 이런 사랑을 추구해왔다.

우연한 만남, 첫눈에 반한 사랑, 달콤한 키스, 잠시라도 못 보면 안달이 나는 두 사람, 그리고 이들 사이에 끼어드는 사람 혹은 일 - 공적이든 사적이든 - 은 철저한 장애물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서 위의 사례처럼 두 사람 중 어느 한 사람이 다른 일로 상대방에게 조금만 신경을 못 써줄 경우에는 분명 사랑이 식었느니 어쨌니 하면서 서로가 험겨워 하는 것은 어쨌면 너무도 당연하다. 그러나 다행히도 만약 둘 중의 어느 한쪽이 자신들의 사랑모습

을 객체화시켜 보라치면 이것 또한 우리시대의 사랑공식에 의거했을 경우, 매우 예외적인 경우로 분명 사랑은 그런게 아니야. 느낌이 중요해, 넌 왜 그 느낌을 믿지 않니? 라는 식으로 풀려질 것이다.

그러나 모두 어느 순간엔가 이런 사랑때문에 힘겨워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 사랑에 대해 의심해 보지 않는가? 왜 풀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가?

이제 우리의 사랑을 한 번 점검해 보자.

사랑도 결국은 인간관계라고 할 때 진정으로 두 사람이 나란히 독립된 주체로서 서 있는지, 어쩌면 우리네 사랑의 모습이 너무 쉽게 뜨거워지고, 어느 순간 힘겨워지면 자신들의 사랑을 다시 재검토해보기도 전에 '낭만적 사랑공식'에 의해 사랑이 식었음이 분명하다는 단순논리도 헤어지고 마는 모습이 아닌지?

이제는 기존의 낭만적 사랑공식을 두 사람 모두가 주체적인 모습으로 서로가 서로를 성장시키도록하는 우리시대의 새로운 사랑공식으로 바꿔보는게 어떨지.

〈느낌 들〉

남녀의 사랑을 인생의 가장 큰 부분으로 알고있는 그대에게.

'자율적, 주체적 개인들의 서로의 삶을 인정받으며 사랑을 하자.' 어느 책에서나 볼 수 있는 우리의 사랑에 대한 정해이다.

오늘 내가 하고싶은 얘기는 '신화를 깨뜨려 보자!' 이다. 소재를 뜨겁게 사랑하는 연인들이 겪는 갈등과 환희를 다루고 있는 영화는 우리가 보는 영화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사랑이라는 것이 인생의 묘약같은 의미를 갖는다는 것은 익히 알고있다. 사랑을 이루었을 때 두 사람의 걸잡을 수 없는 기쁨. 혹자는 이렇게도 얘기한다. "삭막한 세상에 사랑을 얻었을 때의 그 기쁨이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삭막한 현실에서 오로지 한 사람을 사랑하면서 인생에서 활력을 찾는다는 것은 현실도피이며 그렇게 도피할 만큼 삭막한 세상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왜! 인생에 있어서 수많은 질곡속에 사랑이라는 것에 모든 것을 맡기는지 그대에게 묻고 싶다. 아니 나에게도.

우리가 의미를 부여할 대상은 나에게 낭만적·감각적 사랑을 느끼게 하는 이상의 것들은 얼마든지 있다. 그래 얼마든지 있다. 내 주위의 이웃들, 동료들,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 하고싶은 것...

나의 옆에 연인 없다고 한들 그게 무슨 대수랴. 신화를 깨뜨려라! 이제까지 인생의 전부를 사랑에 맡기게 만들려는, 당신을 우매하게 만들려는 영화의, 자본주의의 속임수이다. 당신은 사랑에 있어서 소비자일 뿐이다.

사랑, 그것도 자연스러운 것이지 환상적인 것은 아니다. 보고싶은 사람, 좀 안 보면 어떤가? 같이 있고 싶다고? 그게 사랑이라고? 당신에게 최면을 걸지 말라.

당신은 하고싶은 말을 다하고 사는 것은 아니잖는가? 화가 날 때도 참을 때도 있지 않는가? 몸이 아프면 참을 때도 있지 않는가? 결코 금욕주의가 되어라는 소리는 아니다. 다만 사랑도, 감정도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라는 말이다.

인생에 있어서 사랑의 위치를 조율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사랑도 인간관계에서 파생되는 것이지 그것에 목숨을 걸 이유는 아무것도 없으니, 사랑? 대수롭지 않다.

내 주위의 사람들을 독점적인 사랑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을 찾고 그러면서 행복하다. 연인이 생긴다면, 그것도 아무렇지도 않다. 그와 나는 인간관계의 한 양상을 맺고 있을 뿐이다.

우리 주위의 여성단체

- 서울 지역 -

•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민우회는 여성이기에 받는 모든 불이익과 부당한 대우를 제도적으로 고쳐 여성의 권익을 찾으며 우리 사회의 민주화, 우리 생활의 인간화·협동화를 추구하는 여성들의 모임입니다.

1987년에 창립된 한국여성민우회는 모든 인간이 평등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무직여성들과 주부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되고 있는 여성대중단체입니다. 한국여성민우회에서는 사무직 여성노동자의 평생평등한 노동권 확보를 위해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고, 사무직여성들의 이러한 활동과 함께 주부들은 환경운동, 여성인권운동, 생활협동운동 등 우리들의 건강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국여성민우회는 주부와 직장여성뿐만 아니라 여성문제를 느끼고 공감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연락처 :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 1가 38-84호 여성평화의 집 1층

전 화 : (02)277-7883~4/여성노동센터

269-5763~5/주부센터

• 한국여성의 전화

한국여성의전화는 여성들이 주체적으로 여성억압 현실을 극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파괴하는 폭력을 종식시키며, 모든 인간의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는 통일민주사회 건설에 기여하고 하는 단체입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가정폭력, 외도, 시집갈등 등 가정내 여성문제와 강간, 성희롱 등 성폭력 문제를 상담하고 있습니다. 또 여성인권활동으로서 가정폭력, 성폭력을 비롯한 제반 여성문제의 사회적 해결을 위해 사회여론화, 법적·제도적 장치마련을 위한 활동 등

을 합니다. 그밖의 교육활동과 국제협력활동, 출판홍보활동, 회원활동, 문화 및 재정사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부설 시설로 매맞은 아내의 성폭행 피해 여성들을 위한 긴급피난처 '쉼터'를 서울·부산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다른 부설 시설로 성폭력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성폭력상담소는 강간, 성추행, 성희롱 등 성폭행 피해를 상담하며 심리적, 의료적, 법률적 지원을 하고 있는 있습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인천·수원·성남·강화·전주·광주·울산·부산·대구·청주·창원 등에 지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락처 :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 1가 38-84 여성평화의 집 3층

전 화 : (02)269-2962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가족문제에 대한 법적인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상담은 직접 찾아가야 하는데 특히 이곳에는 여성과 관련된 법 분야의 자료가 도서관에 잘 갖추어져 있다.

전 화 : (02)780-5688~9

- 대구 지역 -

• 대구여성의 전화

여성의 전화(애린회)는 우리의 여성들이 가정과 사회에서 여성이기 때문에 겪는 갖가지 현실적인 문제와 고통을 함께 고민하고 극복하기 위해 일하는 곳으로써 여성들을 위한 실질적인 사랑의 실천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입니다.

1989년 상담실을 개소한 이래로 연 2회 정기교육을 통해 상담자원 봉사자를 배출시켜 전화 및 면접 상담을 받고 있으며, 필요에 의해 구타당한 여성과 강간당한 여성을 위한 비상 휴식처인 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전화 : (053)742-1331·1338 사무전화 : (053)742-1332

• 대구여성회

대구여성회는 여성의 권익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지난 88년 1월에 창립한 여성 단체입니다. 회원은 정회원과 일반회원으로 구성되어있고, 주부와 직장여성으로 구성된 정회원은 각각 올바른 소비활동을 위한 주부모임, 건강한 방송만들기 시민모임, 주민자치 여성지기단(이상 주부모임), 보기와 읽기(좋은 영화 보기반), 이땅의 딸로 태어나(여성문제 연구모임), 신명내고야 말리(놀이문화 연구반)등의 소모임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 화 : 421-6758

• 여성과 현실연구회

여성과 현실연구회는 1992년 9월에 여성학 전공자 아홉명이 작은 모임을 만들어서 (가칭) '대구여성연구회' 라는 명칭하에 세미나를 시작하면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난 4년동안은 대외적인 행사보다는 대내적으로 이론적인 토대를 굳건히 하자는 생각에서 각 분과(가족, 국가, 노동, 성)를 중심으로 주 1회씩 정기적인 세미나와 함께 전체 연구원이 한달에 한번씩 월례발표회를 개최하면서 연구회활동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폭넓은 기획/학술 사업들로 대구지역에서 여성학의 대중화에 앞장서자는 취지로 '여성과 현실 연구회'로 이름을 바꾸어 여성학적 접근과 함께 대안적 사회상을 제시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 화 : 254-0706

성인식을 도와줄 책과 영화

〈새로운 삶을 꿈꾸는 책읽기〉

「새로 쓰는 사랑이야기」, 또 하나의 문화 제7호, 도서출판 또 하나의 문화
「새로 쓰는 성 이야기」, 또 하나의 문화 제8호, 도서출판 또 하나의 문화
「결혼이라는 이데올로기」, 현실문화연구
「일그러진 성문화, 새로보는 성」, 한국성폭력상담소편, 동아일보사
「여성과 남성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 김정휘, 김명선, 김정인 공저, 서원
「사랑의 기술」, E.프롬, 범우사
「남성을 위한 여성학」, 한국여성개발원

〈보다 깊은 인식을 위하여〉

「한국의 여성과 남성」, 조혜정, 문학과 지성사
「제2의 성」, 시몬느 드 보바르, 을유문화사
「남성해방선언」, 프란시스 바울리 엮음, 김주연 옮김, 기원전
「성의 정치학」, 케이트 밀레트, 백의신서
「누가 성정치학을 두려워 하는가」, 서동진, 창작과 비평사
「가족은 반사회적인가」, 미셸 바렛·매리 매킨토시, 여성사
「XY 남성의 본질에 대하여」, E.바탐데, 민백
「페미니즘의 시각에서 본 가족」, B.쏘온 편, 한울
「여성의 신비」, B.프리단, 평민사
「여자로 말하기 몸으로 글쓰기」, 또 하나의 문화 제9호, 도서출판 또 하나의 문화
「섹스 포르노 에로티즘: 쾌락의 악몽을 넘어서」, 김수기 서동진 엮음, 현실문화연구

〈아동양육에 대한 책〉

「함께 크는 우리 아이」, 공동육아 연구회 펴냄, 도서출판 또 하나의 문화
 「어머니의 양육과 타인의 양육」, 샌드라 스카 지음, 현은자 역임, 양서원
 「우리 아이들의 육아현실과 미래」, 탁아제도와 미래의 어린이 양육을 걱정하는 모임,
 한울
 「평등한 부모 자유로운 아이」, 또 하나의 문화 제1호, 도서출판 또 하나의 문화

영화소개

홍등

전통이라는 굴레(가부장적 질서) 속에서 여성들의 삶이 얼마나 억압되고 파편화 되어
 가는 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장미의 전쟁

가부장적 가족제도하에서 여성이 일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이러한 제도하에
 서는 남녀모두가 희생자임을 그들의 죽음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우리시대에 여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는것의 의미를 생각하게 한다.

성, 거짓말 그리고 비디오 테이프

‘성’을 둘러싼 우리의 ‘말의 구조’가 어떻게 허위에 싸여 있으며 그러한 허위의 구조가
 인간을 어떻게 가두는가를 보여주고 그러한 허위의 구조를 다시금 ‘말’로써 극복하는 과
 정을 보여 주고 있다.

피고인/ 립스틱

여성들의 몸에 대한 권리의 회복 과정을 다룬 영화.

성정치위원회에서는
 매주 목요일
 ‘성(性)’을 주제로 한
 열린토론회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깨어있는 지성인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연락처 : 850-2949